

하밍타잉 선생님이 들려주는 베트남 이야기

하밍타잉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베트남 국립 하노이인문사회과학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방현석 작가의 『랩스터를 먹는 시간』, 『존재의 형식』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며 한국문학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하대학교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요

베트남이라는 말은 1804년 르웬왕조 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이름인데요, 남쪽에 있는 '비엣족의 나라' 라는 뜻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쪽이라는 의미예요. 1945년까지 '나잇남'이라는 이름과 혼용되다가 1945년 호치민이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선언하며 우리나라 이름으로 다시 정해졌어요. 후에 1975년 항미전쟁을 끝내면서 통일 베트남을 세우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지금 이름을 쓰게 됐어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벌였던 전쟁을 '베트남전쟁'이라 하던데, 우리는 그런 명칭을 절대 쓰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과 치른 20년(1955~1975)간의 전쟁을 항미전쟁이라 하고, 그 전에 프랑스의 침략으로 벌어진 80년(1865~1945)간의 독립전쟁을 항불전쟁이라 해요.

베트남은 나라가 아주 길기 때문에 날씨도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남북 길이가 1,700Km이니 정말 길죠. 북쪽에 있는 하노이는 4계절이 있어요. 겨울에는 영상 4~5도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온도도 아주 춥다고 느껴집니다. 집에서도 난방이라는 것이 없으니깐요. 남쪽에 있는 호치민은 일 년 내내 더워요. 꽤 더울 때는 영상 40도까지 되기도 해요. 남쪽 사람들은 항상 햇볕을 받으니 얼굴빛도 조금 검은 편입니다. 베트남 사람의 90%가 킨족이고 저도 '킨족'이죠. 53개 소수민족은 대개 산 속에 살고 있어요. 민족끼리 따로 모여살고 있어서 다른 문화와 잘 섞이지 않은 상태이고 문명도 아직 덜 받아들인 상태예요. 도시로 나오면 복장이나 느낌으로 소수민족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4개 민족을 모두 합쳐 '비엣족'이라고 해요.

1945년에 민주공화국을 만들면서 정식 국기로 정한 '금성홍기'의 빨간색은 혁명, 즉 베트남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를 말합니다. 노란색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 힘을 상징하는 색이죠. 아마 예전에 중국영향을 받아 왕의 복장도 노란색이었는데 그것이 기원이 된 듯해요. 또 베트남이 황인종이라 그렇게 노란색을 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노란별의 다섯 꼭지는 '사농공상병'에 해당하는 5개의 그룹이 단결하여 적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 사람은 좀 엄격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미소로 인사해요. 남성들은 주로 악수를 하고요, 여성은 한국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바라보고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웃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

하고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지요. 특히 설에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서로 방문해서 덕담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저도 꼭 그 댁을 방문해서 인사를 해야죠.



우리 음식과 옷차림은요

베트남 사람에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어요. 다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익히지 않은 음식, 회 같은 것은 잘 안 먹죠. 개고기 요리도 아주 흔해요. 한국은 월드컵을 치르면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알려지며 서양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베트남은 한국보다 개고기를 더 흔하게 먹는데도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은 없어요. 우리는 개고기를 이용한 9가지 요리가 있어요. 저는 한국보다 베트남 개고기 요리가 더 맛있던데요. 아,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부족 중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에 칼을 쓰지 않는 풍습이 있어요. 새해 첫날을 살생을 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의미죠. 복 나간다고 비질이나 청소도 안 해요. 설날 먹는 떡인 바잉 쩡도 칼을 쓰지 않고 자릅니다. 바잉 쩡은 찹쌀 속에 녹두와 돼지고기를 넣고 라종잎으로 싸서 대나무 줄기를 가늘게 쪼갠 끈으로 묶어 찌거든요. 그래서 칼 보다는 그 대나무 끈으로 떡을 잘라 먹어요. 베트남에서 대나무는 아주 흔하고 활용을 많이 하는 나무예요. 마을마다 대나무가 있어서 마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대나무를 활용해서 바구니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베트남 음식은 쌀국수와 월남쌈이죠. 제 생각엔 모든 베트남 음식에 활용하는 느억맘(액젓)이 가장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아침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전날 남겨둔 음식을 먹거나 국수나 빵 같은 것을 사 먹기도 하고요.

베트남 여성들은 예전에는 '아오이엠'이라는 등판이 없는 윗옷과 '베이엠'이라는 검정치마를 일상 복으로 입었어요. 예를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아오자이를 입었는데, 아오자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형되었죠. 요즘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월요일에 흰색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입어요.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직원의 유니폼으로 입고요. 그런데 아오자이는 좀 불편한 옷이에요. 서 있을 때는 아주 예쁘지만 앉으려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남성 아오자이는 결혼식 같은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입는 옷이 됐어요. 또 베트남 여성들은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여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머리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도 그 머리를 아주 좋아해요. 아오자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거든요. 머리 염색은 거의 안하죠. 염색하는 여성은 좀 못된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어요. 남성들은 자기 애인이나 아내가 머리를 염색하면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싫어해요.



주거와 일상생활

86년에 도이모이(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과 직업을 배정하던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직장도 알아서 구하고 집도 알아서 구해야죠. 이미 제공받은 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여성들은 특별히 혼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결혼식은 남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여자 집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결혼해요. 혼인잔치는 양쪽 집에서 따로 합니다. 신혼집은 여유가 있으면 세를 따로 얻어 살기도 하고, 아니면 시부모님 집에 살기도 해요.

남성들도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저녁식사를 준비하거나 아이를 돌봐요. 혹시라도 친구들을 만날 약속이 있다면 저녁을 먹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하죠.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도 편리하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부자들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성인들은 거의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봐야죠. 값이 싸지기도 했고 경제상황이 많이 좋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교사, 의사가 인기죠. 남자들은 경찰, 군인 같은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는 직업을 좋아해요. 정년퇴직 이후에도 연금이 나오니까요. 5년 전만 해도 사범대만 졸업하면 교사가 되었는데 요즘은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

베트남은 생활양식이 서서히 현대화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감수성도 높은 편이죠.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보는 시각이 거의 없어요.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하는 편입니다.

베트남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어요. 보통은 할아버지 대 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 들어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뒤에도 제사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조상을 기리는 것은 베트남의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제사 때는 집 모형이나 돈(달러까지도) 모형을 태우는 문화가 있어요. 조상님들이 저세상에서 그 집과 돈으로 다복하게 지내시라는 의미지요.



베트남의 남과 여

베트남은 여성과 남성이 상당히 평등합니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어요. 맞벌이가 일반적이고요. 여성도 직장이 없으면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기 힘들거든요. 직장에서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돕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은 5시인 퇴근시간을 앞당겨 4시쯤 퇴근해도 될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하죠. 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해서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은 불임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가 생기면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육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나머지는 유상입니다. 교육비와 병원비가 무상은 아니지만 아주 싸입니다. 국립대는 한 달에 등록금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이고 사립은 그것의 2배 정도입니다. 사립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0명 중에 한두 명만 대학에 가니까, 어떤 대학이든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방학은 없고 여름방학만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있어요. 모든 학교는 9월 5일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겨울에 영상 8도 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초등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7시에 시작해요. 11시 반에 점심시간을 2시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잠깐 자요. 학교는 오전에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오후에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오후 학교는 1시 반부터 시작해요. 학교 수업시간은 4시간이고요, 요즘은 사설학원이 많이 생겨서 수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같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국기 게양식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 설 때 게임기를 가지고 놀거나 만화를 보고 장기도 꽤 두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줄넘기,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하고 놀았어요.

123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과 숫자

베트남 사람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화려한 색을 좋아해요. 숫자는 9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럭키7도 좋아합니다. 색은 검정색을 싫어하는데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로는 빨간색과 검정색을 사용해요.



한국의 좋은 점, 힘든 점

한국은 대중교통이 편해서 정말 좋아요. 또 국민건강보험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좋고요. 베트남의 건강보험은 아주 복잡해서 사람들이 보험이 있어도 잘 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에 와서 힘든 점이 있다면 지하철에서 아기를 안고 있어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외국인이라 양보를 안 해 주는 것 인지 아니면 워낙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친구랑 우스개로 하는 말이 '호선 사람들이 가장 나쁜 게 아닌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국인이라 양보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생활

유학생, 노동자, 결혼이주자 이렇게 세 그룹이 각자 다르게 지냅니다. 유학생은 집에 모여서 음식도 해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노동자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베트남 사람들끼리 만들어 돌려보는 신문은 없어요. KBS에서 운영하는 베트남어 방송은 있어요. 저도 그 방송 일에 관여하고 있어요.